

# 불교복지 중심말은 '대리고·협력·보편주의'

〈代理苦〉

강사 : 박광준(일본 불교대학 교수)  
 일시 : 2010년 3월 26일  
 주제 :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최 : 조계종 중앙신도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세상의 모든 존재는 홀로일 수 없는 까닭에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픈 것처럼 참된 불자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 불교사회복지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임에도 대중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아니다” “그들의 고통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특강이 열려 눈길을 끈다. 일본 불교대 박광준 교수는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대리고(代理苦) 이론을 소개했다. 이날 특강은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발간을 기념해 열렸다.

#우리는 장애인 덕(?)에 건강하다  
 불교인으로서 불교적 장애인관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무라오카는 “고통을 대신 짊어진다”는 대리고(代理苦)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누군가가 특정 질병을 앓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라오카는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집단과 병이 없는 집단의 관계가 서로 연관됐다는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관계는 병을 가진 집단이 병이 없는 집단에게 이타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무라오카는 질병의 발생률에 관한 데이터(일본의 질병 종류별 발생률과 모집단, 2001)를 제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질병의 발생 빈도는 갑작스레 변동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이 점은 대리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은 1000명당 1명 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0명중 한 명이 다운증후군에 걸리면 나머지 999명은 다운증후군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그는 ‘이타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운증에 걸린 한 사람은 자신이 그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짐으로써 나머지 999명이 다운증에 걸리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적인 장애인관은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만약 사람들이 대리고 사상을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장애인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 빚을 어떻게 헤쳐든 값어치할 것인지를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적응을 수급하는 사람들을 사회의 짐으로

간주합니다. 무라오카는 이를 ‘희생자 비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고, 희생자 비난에 대항할 수 있는 의료사상으로 대리고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사회복지란 복지 니즈(needs)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서비스란 위험의 분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롯해 누구나 복지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복지수급자를 사회의 짐이라며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고 이론은 정작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란 건강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무라오카는 대리고 이론이 불교사상에 기초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불교에서는 널리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행위를 이타행이라고 하는데, 대리고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고통을 짊어지는 이타행의 한 표현”입니다. 이는 보살도의 인욕(忍辱)에 해당됩니다. 불교사상에 근거한 이러한 생각을 만약 장애인에 대한 관념에 적용한다면 가장 불교적이자 가장 사회복지적인 장애인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협력하는 마음 길러야  
 붓다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를 ‘초인적인 존재’로 보기도 하는 ‘인간붓다’로 파악하는 것이 붓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붓다인 이유는 그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철저히 실천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시도 정

신을 놓지 않고 있어야만 바른 실천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붓다의 삶이란 실천적인 삶입니다. 붓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에 만족하고 자신만이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렀다면 붓다가 아닙니다.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모두가 자신이 도달한 경지의 삶을 영위하도록 온갖 실천적 노력을 했던 것. 그것이 붓다의 자비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붓다입니다. 붓다의 지혜와 더불어 붓다의 실천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붓다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붓다의 삶’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충실한 국가입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해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최저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체제를 말합니다.

프리들랜더(W.A. Friedlander)는 인간의 존엄, 자발성의 존중, 기회 균등, 사회연대의 네 가치를 사회복지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상으로 삼는 사회 모습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된 조화로운 사회, 개인의 존재가 존중되고 지역사회의 관계 속에서 삶이 보장되는 사회, 다양한 사회성원들 간에 사회연대 의식으로 결속된 사회입니다.

복지사회의 실현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복지가 앞서가는 국가는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복지에 지출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수준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지에 투입되는 돈의 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의 질이란 ‘사회자제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차별이 적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 적은 돈으로도 높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회복지제도 이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권위적입니다. 인간을 볼 때 인간됨을 먼저 보지 않고 신분이나 직업, 소득 및 교육수준, 장애 여부 등을 먼저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결핍된 것의 하나가 서로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박광준 교수는 강연에서 ‘붓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몸과 정신을 가지고 한계에 도전해 인간으로서 이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우리는 붓다의 가르침을 접한지 오래 됐지만 그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 차별없이 서로 존중하면 복지의 질 높일 수 있어



3월 26일 열린 <붓다의 삶과 사회복지> 출판기념 특별 강연에 참석한 사부대중의 모습.

#뜻밖명 모두가 소중  
 붓다는 ‘모든 인간에게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싫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신에 기반을 두고 승가 발전했습니다. 승가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이자 그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승가는 다양한 출신계급으로 구성됐지만 승가 내에서는 사회의 차별적 관행이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승가 내에서 붓다를 특별한 존재로 모시는 모습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붓다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경계하고 있었고 다른 승가 구성원과 다름없는 생활을 임종 때까지 실천했습니다.

승가의 한역은 화합중(和合衆)입니다. 집단 내에서의 화합이 매우 강조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승가의 입단 조건에 대해서는 붓다 역시 고심했습니다. 수행에 있어서 좋은 벗(善知識)의 중요성을 특히 중시했던 붓다가 승가 내의 화합을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붓다의 승가가 공동체 실천을 장이었고, 승가 내의 질서란 평등의 질서였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디만, 승가 공동체가 붓다가 꿈꾼 이상사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붓다가 꿈꾼 것은 승가의 원리가 보다 넓은 전체사회 속에서 실현된 모습입니다. 모든 이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붓다의 수행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평등의 이상을 공유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은 ‘사방(四方)의 모임’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방을 자신의 집으로 여긴 곳이 곧 사찰입니다. 작년 이 책의 집필을 위해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경로급식에서는 ‘사방의 모임’의 정신을 엿보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처우를 받는 것은 사방의 식단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 용어로 말하자면 보편주의(Universalism)의 실천입니다. 보편주의란 서비스 이용자의 자선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의 반대 개념은 선별주의(Selectivism)입니다. 선별주의란 어떤 기준 이하의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별주의적 실천을 행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이 스티그마(stigma,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자극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오명)를 느낍니다. 즉, 자신들이 빈곤자라고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굴욕감을 느끼고 수급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방의 모임’은 선별주의의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생명들과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공생입니다. 공생의 생(生)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이란 모든 존재가 생명을 서로 나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다른 생명의 행복이 커지면 자신의 행복도 커지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을 바라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행복 파이를 키워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교사회복지의 기본 정신입니다.

정리=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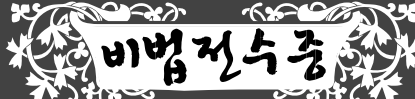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시록
-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액운(厄運) 차단법
-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 선거 후보당선 비술하는 여부 판단법
-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 소송·판재사의 승패 판단법
-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世)투시법
- \* 前生의 夫婦(夫婦)인연 원집살이 現生(今生)에 미치는 현상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憑依)작귀신론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死後)환생(轉生) 귀신작해론
-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02) 3667-4446  
 010-3813-4443